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東部西伯利亞地方 戒嚴·軍隊動員說

蘇聯官邊側선事實否定

【莫斯科十八日發同盟】滿蘇國境紛爭事件에關하야 外國方面에서는 東部西伯利亞戒嚴說、軍隊動員說等이傳하는데 蘇聯官邊에서는 이風說은 모두 事實無根이라하야 否定하고잇다 今番滿蘇國境紛爭에關하야는 政府當局은 沈默을지키여 方今開會中인 露西亞共和國最高會議에도 何等 報告하지안는程度로 莫斯科 中央政府의態度는 자못 消極的이다

張鼓峰事件에關해 滿洲國回答을督促

【新京十八日發同盟】張鼓峯事件에 關하야 外務局은 거듭 蘇聯政府에 回答을 督促키로決定하고 十八日午後 在哈下村特派員에게 訓電을發하야 蘇聯側의 至急回答을 要求케하엿다 따라 同特派員은 今明日中에 다시 抗議를 提出、回答을 督促키로될 模樣이다

×××××××

張鼓峯이 滿領임은 文献上으로도明白

【東京電話同盟】蘇聯軍이 不法占據한 張鼓峰附近의 境界問題에關하여는 蘇聯側은 이를自領이라고稱하야 依然不信한 態度를보이고잇스나 同地方이 滿洲領임에對하여는 明白한 根據가 잇서 我方은 오즉這點으로부터 蘇聯側의 不法을 指摘하야 徹底히 要求할 斷乎한方針을 堅持하고잇다 即從來 張鼓峰附近의 滿蘇國境線所在에 關하여는 二說이잇다 하나는 露國參謀本部發行八萬四千分之一地圖에記入되여잇는線으로 本境界는單只 何等條約的根據는 發見할수업다 이에對하야 다른하나는 所謂琿春界約에依하는것으로 前項境界線에比하야 二乃至三키로 西方에 치우처잇서 琿春界約은 一八八六年 滿露兩國이 各各全權委員을 現地에派遣하야 境界를 議定케한後 그結果에基하야 一八九〇年 北京條約附屬條文으로 修正을 加한것이다 琿春界約의 露文은 現存하여잇지안흐나 맛소프스키著支那帝國地理槪論附錄 露支國境考中本件에關한部를 引用한면 國境은 豆滿江을 起點으로하야 彭江을遡上하기 十五露里로서 土字界牌(註下卧峰北側)에이르고 同界牌로부터 西方에向하야 山嶺을따라 哈察湖(註長池) 西側을經하야 砂質(註沙草峰)에 한다 이에第一界標를 세운다云云하엿고 琿春界約에 關하여는 支那文 交通道路記文을 보면 土字牌로부터 西北西峰을 넘어서 哈察湖西를 經하야 沙岡子에 至한다云云하야 右兩文獻을보면 露文에依할時는 張鼓峰은 滿蘇國境線上에屹立하여잇다고도觀察된다 그러나 支那文에 依하면 그土字界牌로부터 西北西標高 五十五高地東側(文中峰으로解釋)으로부터 長池西側張鼓峰東側을經하야 砂岡(沙草峰)沙岡子에 이르다고 解釋함이 安當하다 右兩文獻의 法的價値를 比較하면 露文은 一地理書에 不過하나 支那文은 儼然한 條約文으로 國境線考證에잇서서 唯一한 資料라 稱할것으로 따라 張鼓峰은 完全히 滿洲國에 屬한다고 判定할수잇는것이다 이를 事實에 徵하여도 從來 張鼓峰 附近의 滿洲國側 勢力圈內에잇는 附近住民等은 가끔가끔 同峰에올라 祭禮를 지내고 或은 家畜放牧等에 從事하고 잇는데 今日까지 沙草峰南端―長池內西側―張鼓峰東側沙面에 通하는 道路로써 國境線이라고 稱하고잇는 狀態이다

〔社說〕 歸鄕하는學生 諸君에게 —汗의貴함을體驗하라—

一

今後 數日을 두고 京鄕各學校는 一齊히 夏期休暇를한다。例年가트면 學生들이 登山海水浴할 好機가 왓다고 제各各避暑地를 차자가거나 苦待하는 父母의 膝下에도라가 起居寢食을 自由로 할것이나 今年은 事變下라 學生들에게 勤勞報國의精神을 涵養코저 各各 應分의勤勞를 시키기로되어 或은 京城에 或은 地方의 職場에 보내기로 되엿다。그러므로 今年夏休는 休養의 夏休가 아니라、勤勞體驗의 夏休로 땀의 貴함을 體驗할 夏休다。

二

平時의 夏休는 學生에게 唯一한 休養期이다。學窓에서 疲困한 몸을 極暑의 一個月間休息하고 그 期間에 學窓에서修得지못한 學問을 천천히 調査研究할 機會를 주엇다。人生의 一生이 思想苦鬪의 歷史가 아니라면 少年及 靑年期에 잇서서 身體上、精神上 修養할 機會를 주기위하야 一、二個月의 休暇줌은 잇슴직하다。歐米先進諸國이 夏休를 一個月 乃至 三個月로하야 學校內의 工夫만을 學問으로 삼지안코 社會에서 어든 智識으로써 學問修練의 主要素가 되게함은 이때문이다。

三

그러나 現下와가튼 戰時下에 잇서서는 學生들도 閑暇한 休息과 豪奢한 避暑生活을 엇삽을수가 업다。數만흔 將兵은 百三十餘度의 高熱下에서 飢餓와 毒虫과 싸우면서 戰爭을 하고잇고、國內의 諸人員은 各各忍苦鍛鍊하야 銃後의 支援을 不惜하고잇다。官廳은 半休를 쉬이고、豫算을 節約하고잇스며、民間에서는 消費節約、勤儉貯蓄을 標語로 實踐하고잇다。아무리 學窓에잇는 學生인들 어찌 晏然히 傍觀하고잇스며 況 享樂的氣分의 充溢한 登山、海水浴의 避暑行脚을 할수잇스랴。

四

登山中에도 探險을 主目的으로하는것이나 旅行中에도 學術探險을 爲主한것이라면 以上의 享樂的、豪奢로운 性質과 다르니 助長할 餘地가 잇다。即 忍苦鍛鍊하는것이나 堅忍持久하는데는 無限한 精神的訓練이 잇고 汗의 貴重한것을깨닷는다。

그러므로 今年夏休中에는 探險을 目的한 登山、旅行을하는外는 豪遊의 登山 海水浴은 避할지며、餘暇가 잇다면 父兄의일하는 農工商業의 助力 又는 實際作業을 해볼것이다。이바게各鄕里에서行하는 公益工事를 助力한다든지、堤防、運動場等 修築事業에 몸소 從事함은 學生으로서는 엇기어려운貴重한 體驗이다。

中學生、專門學生、大學生諸君이어、夏休에 實際로 땀의貴함을 한것을 體驗하고 社會와 國家生活이 얼마나 한 困苦가 잇는가를 體驗해보라 이것이 곳人生生活의 出發이다。

對蘇關係緊迫으로 重光大使莫府에歸還

【東京電話同盟】十八日午後 外務省着電에依하면 張鼓峰附近의 蘇聯兵不法越境事件을 繞圍하고 對蘇關係가 緊迫하여짐에 鑑하야 일직이 北歐方面에 旅行中이든 重光駐蘇大使는 十八日飛行機로 急遽 莫斯科에歸還 今後의 對蘇抗衝에 當키로되엿다한다 (寫眞은 重光大使)

부元帥 莫斯科行注目

【新京十八日發同盟】블루헬元帥의 極東方面軍司令官任命과 그의莫斯科行은 赤軍將來의 動向이 重大한轉換期에 直面한것을 表示하는것으로 부元帥의勢力削減을 企圖하는 스탈린의內意에依하야 부元帥의 莫斯科 出頭後 스탈린과의 會見結果 그가 스탈린에게 부러서身의 安全을 圖謀할지 或은 그가側近者와합께 極東赤軍의 스탈린化에 反抗할지 如何는 부元帥로서도從來의 不即不離한 關係를 取해갈지 어쩔지 여러가지 情勢로 보아困難한點이잇서서 元帥現在의 立場이야말로 十字路에 서엿다고 볼것이다

伊太利大使 堀內次官과要談

【東京電話同盟】아우리치 駐日伊太利 大使는 十八日午後二時半 外務省에 堀內次官을 訪問要談 約二十分만에 辭去하엿다

池田藏相參內

【東京電話同盟】池田藏相은十八日午後三時宮中에參內 天皇陛下께拜謁、重要事項에關하야 奏上하여러가지御下問에 奉答하고後 御前을退下하엿다

陸相三中將을招待

【東京電話同盟】板垣陸相은 日前에歸還한 川岸文三郞、牛島貞雄、下元熊彌三中將을 十八日午後六時부터 陸相官邸에 招待하야 本省側으로부터 東條次官、各局長、參謀本部各部長과 敎育總監部로부터 山脇本部長各兵監出席、晩餐會를開하며 懇談한後 同九時지나 散會하엿다

照宮殿下 勤勞奉仕에御參加

【東京電話同盟】女子學習院中期三年에 御在學中이신 照宮內親王殿下께서는 十八日부터 六日間行하는 中期三年以上의 勤勞奉仕에御參加하사 傷兵의 身上을생각하사 白衣를 御裁縫하시고게신다 殿下의 御組에는 「의게오」等을 分擔하시엿는데十八日高橋女史의 指導를 바드사 巧妙한솜씨로 한바늘식 精誠것 裁縫하시는 御樣態를 拜하고 長屋院長以下는 感激하엿다 그리고 後期一年에 御在學中이신 貴陽宮美智子女王殿下께서도 亦是白衣의 御奉仕에 精勵하시는데 兩殿下께서는 二十日부터 暑中休暇가되서도 繼續하사最後의 二十三日까지 參加하실 御豫定이시며 同院에서는 그間約二百枚를裁縫하야 陸軍에獻納키로되엿다

松島伍長事件도 蘇聯側에嚴重抗議

【東京電話同盟】蘇聯兵에게 不法射擊을 바든 我松島憲兵伍長 戰死와및 一名負傷한 不祥事件에 對하야 西昆駐代理大使는 十六日午後十一時半스토모니아콥호 蘇聯邦外務人民委員代理를訪問 張鼓峰不法越境事件에 對한我方의 嚴重抗議를 提出할때 이事件에 關하여도 어는 蘇聯側의 不法한 挑戰行爲로서 我憲兵이狙擊을받은地點은 明白히 滿洲領으로 그責任은 一切 蘇聯側에 잇다고 嚴重抗議하야 蘇聯側이 我憲兵一行을 不法越境者로 보앗다하야 責任의轉嫁를 圖하라하는 意圖를一蹴하엿다

漢口에로漢口에로 敵六十個師集結

外人籠城準備에奔忙

【上海十八日發同盟】漢口來電에依하면 國民政府는 未久에닥처올我漢口攻略戰에 對하야그防禦에 腐心하야 漢口戰이야말로日支戰最後의 결식를가질決定的戰鬪라하야 國民鼓舞에 奔走中인데 當局에서는我漢口進擊部隊가 一、九江으로부터 揚子江을 遡江하는直進經路 二、揚子江의北岸에잇서서의包圍作戰 三、먼저南昌을攻略하야 後 漢口長沙間의 鐵道를遮斷할經略 此等中의하나를 選擇할것이라하야 六十個師를漢口附近에 二十個師를 南昌附近에配置하고이를防備시킨다고 傳한다 現在漢口의第三國人은 總數千二百名에 達하는데 이들第三國人은 빠르게도 漢口籠城의 準備를하며 英國當局은 十八日 香港으로부터 二百名의水兵을 漢口에 急派하엿는데그들이駐屯할英國租界는 이미 鐵門에依하야 嚴重히防備되여잇는等 漢口는 未久에올戰鬪를압두고 動搖의色이 益益濃厚하다

英陸戰隊二百名 香港經由漢口에

【香港十八日發同盟】威海衛에避暑中이던 英巡洋艦의·폭크號는 十八日午前六時 香港에 歸還하엿는데 同艦에는 英陸戰隊二百名이 便乘하고잇서 그들은 今日午後四時 特別列車로 漢口에 急派될 豫定인데 漢口到着後는 英租界警備를 擔當할터로 英國長江艦隊에 一威力을加할것으로보인다

陳福建省主席 支那記者에豪語

【香港十八日發同盟】最近福建省의 獨立說等 主席陳儀의態度가 怪異하다는消息이 流布되고잇스므로 支那記者는 그와直接會見을求하야 意見을徵하엿든바 그는다음과가티 말하엿다 福建省은 事變勃發當初 日本軍의 攻擊을 受하는것이라고 생각하엿던바 地理的關係로 今까지도 그攻擊을免하고잇다 金門島厦門의 喪失은海上이므로 不得已하나 福建省沿岸一千支里는 어디까지傳統의 精神으로써 守護할 覺悟이다 戰時敎育은 十六歲로부터 四十歲에까지의 失業男女에 對하야 實施하고잇다 政治는官治로부터 自治에나아가고 福建省은抗戰의 一單位로써 이에基하야 最後의勝利獲得에 邁進코저한다

現地事態에따라 英米人歸還認定

【東京電話同盟】英米兩國人의南京 其他 揚子江下流地域에의 歸還及 財産占有問題에 對하야는 크레기英國大使 그로米國大使와 宇垣外相 堀內次官間에 數次에 亘하야 折衝이잇섯든結果 이番에 圓滿히 解決되엇스므로 在支英米人은 漸次正當히 手續을 밟어 揚子江下流地方에 歸還하게되엿다 이는 在支第三國權益尊重의 帝國政府의 根本方針의 具體化로서 帝國政府는 今後 現地의 事態에 即하야 漸次이 旣定方針을 實現할것은 勿論이며 이미 英國政府가 帝國政府에 要望한 第三國船의 揚子江航行、英國人의 京滬鐵道視察等의 諸問題가른것도 順次로 容許할것으로보인다

國民登錄原案完成

五百萬勞務、技能者動員可能 十一月부터實施方針

【東京電話同盟】厚生省은 戰時下의 軍需勞務給對策의 根幹이되는 國民登錄制度에 關하야 國家總動員法 第二十一條「政府는、國家總動員上 必要할때는勅令의定한데依하야 帝國臣民及帝國臣民을雇傭 또는使用하는者로 하야 帝國臣民의 職業能力에 關한事項을 申告시키며 또는 帝國臣民의職業能力에關하야 檢査할수잇다」이라는規定을 發動하야 드디어 勅令公布後可及的速히實施하기로 決定하고 準備中이던바 職業部를中心으로 首腦部會議를 開催하야 勅令案作成을 急히하든바 今番에 겨우 原案完成을보아 條文整理後 늣저도七月下旬까지에는 企畫院에 送付하야 勅令案의再檢討를行한後 大體로 今年十一月부터 施行할方針下에 着着準備를進行中이다 即國民登錄制度의厚生省原案의大綱은 如左하다 本勅令에 依한 國民登錄義務者가될 勞務者及技能者는 全國에約四、五百萬이될터인데 實施되는때에는 我國의勞働行政에 劃期的轉換이 招來될것으로 注目된다

◇國民登錄原案大綱

國民登錄義務者

一、帝國臣民으로서 十六歲以上 五十歲까지의 男子로서 厚生大臣이 指定한 職業에 三個月以上 從事한者는 原則으로 國民登錄義務者가될것

一、前號者로서 過去五個年以內에잇서서 一年以上 厚生大臣의 指定한職業에 從事한者도또한 同樣으로 國民登錄 義務者가될것

一、厚生大臣이 指定하는 工鑛關係의 大學、專門學校、中等學校以上의 學校에잇서서 그技術을 修得한者는 國民登錄의 義務者가될것

一、國民登錄制度에 登錄할 大臣의 指定한 職業은 厚生省令으로써 公布指定함

夕刊後市況 十八日

◆各地 期米 後止◆

	當限	中限	先限
大邱	—	三·光	三·圭
釜山	—	—	三·六
群山	三·六	三·奕	三·茵
木浦	—	三·吾	三·兕
下關	—	—	丟·丟
名古	—	—	丟·吾

◆各地 商品 後引◆

	當限	先限
福井人絹	八八〇	八五〇
橫濱生糸	七九〇〇	七五七〇〇

首相·陸相定例會談

【東京電話同盟】近衛首相과 板垣陸相과의 定例會談은 十八日午後零時三十分부터 首相官邸에서行하고 午餐을가티한後 當面의諸問題에 對하야 意見交換을하엿다

中央航研設立 廿一日委員會開催

【東京電話同盟】航空日本의 國防的礎石을 築成코저 遞信省에서는 明年四月부터 航空研究機關인 中央航空研究所를 開設키로되엿는데 廿一日 同研究所設立準備委員會를 開催하고 大藏大臣談을 發表하고 會後 大藏大臣談을 發表하기로되엿다

正貨一部現送

大藏省顧問諒解

【東京電話同盟】輸出振興策으로서 輸出原料의輸入을 圓滑히하기爲하야 日銀의 正貨準備의一部를現送하야 別勘定으로하려는 件에對하야 池田藏相은 十八日大藏大臣官邸에서 開催된 大藏省顧問會議에 提示하고 各顧問의意向을 무럿는데 各顧問도 一致 池田藏相의方針을 諒解하엿스므로 池田藏相은 十九日閣議에 正貨準備 一部現送의件을 附議하야 閣議의諒解를바든後 大藏大臣談을 發表하기로되엿다

英皇帝를奉迎할 巴里에歡迎氣分漲溢

【巴里十七日發同盟】英國皇帝조지六世及엘리자베스皇后를 奉迎할 巴里全市는 이미 數日前부터 歡迎準備에 忙殺되여잇다 皇帝御接待의 大役을 마튼 봉네外相은 十七日皇帝의 御宿舍인 케돌세의 貴賓館의各室을 親히 檢閱하며 歡迎準備에 遺漏업기를 期하는 一方 一般市民은 十四日의 巴里祭에 繼續하야 祝典氣分이 濃厚하며 重要한 各廣場에는 每夜多數의 市民이 雲集하야 단스로興을돕고 凱旋門으로 有名한 에드와廣場의周圍에는 英國、佛蘭西 兩國旗를 석거꼬진 歡迎塔이 세워지고 其他 繁華한場所에는 여러가지 裝飾을하야 巴里는 萬般의歡迎準備를마치고 英國皇帝御訪問의날을 기다리고잇슬뿐이다

我海軍航空隊 南支各地猛爆

【上海十八日發同盟】艦隊報道部는 十八日正午發表=十七日海軍航空隊는 南昌飛行場에서 大型機三機 小型機四機를 爆破、整備格納庫를 潰滅(二時間炎上)其他格納庫를 大破하엿다 敵機는 한대도 挑戰해오는것이업섯고 鄱陽湖에서는 興城鎭附近에서 草木으로 僞裝한約二百噸의 軍用汽船이 我爆擊으로 말미아마 黑煙에싸여 沈沒되엿스며 約五十噸의 敵軍用汽船一隻도 甚大한損害를 바덧다 一方 九江 獅子山間에서는 桃花山東北方陣地 新港南方陣地及 九江의 바로下流南岸敵陣地를 猛烈히 爆擊、모두이를 大破하엿다 廣東方面에서는 黃波驛構內建物六棟을爆擊粉碎하야 驛附近線路四個所를 切斷한外 廣東市郊外增步化學工場、廣東市對岸 河南鴨山部落東側 新砲兵陣地를 攻擊、多大한 損害를 주엇다 그리고 粵漢線曾江口兵工廠을爆擊炎上케하고 同地附近鐵道를遮斷시켯다

부元帥莫府向發

【新京十七日發同盟】[illegible]에依하면 極東方面軍司令官에任命된 블루헬元帥는 今回스탈린의 [illegible] 昨日中莫斯科로가게된模樣이다 同元帥의 莫斯科行은 通說의 黑시코프大將事件의善後處理의 報告次로보인다

現地에總督設置說

政府正式으로否定聲明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事變處理의 [illegible] 對支政策遂行의 中央機關의 設置에 對하야 [illegible] 하야目下그組織權限等의 檢討를 하고잇는데 支那新興政權과 協力하야 文化的 經濟的開發의 目的에 寄與하는 現地機關設置에 對하야 總督또는 總監等의說이 傳하는 誤解가 잇는模樣임으로 十八日午後 風見書記官長談의 形式으로써 前記名目의것을 設置할 意向이업다는 旨를如左히 正式否定聲明을 發表하엿다

風見內閣書記官長談

最近、日本政府에서 支那現地機關으로 總督 또는總監을둔다는 說이잇스나 日本政府의 對支態度는 從來聲明한것과 何等 變化가업스며 前記 說은事實 無根이다

安川東拓總裁入京談

安川東拓總裁는 池邊新副總裁及東拓新理事人事紹介次 十八日午後노조미로入京 朝鮮호텔에드럿는데 氏는如左히 말한다

理事의 分擔에 關하여는 渡邊理事가 辭任한關係上 變更치안흐면안되게되엿는데 近近決定키로되엿다

濟州島無水酒精問題는 日前에 朝鮮에왓슬때 總督府에 提案하여두엇슴으로 그回答을 기다리고도라갈생각인데 東拓이 進出할것은 旣定方針으로 다만 [illegible] 問題이다 [illegible]

時는金이다 特別써―비스 市價三分ノ一
★註文時에는 (某外國商館型錄處分品引受整理)
(1)五圓以上…샤―프펜 (2)十圓以上…萬年筆
無代進呈합니다
싸기때문에잘팔리고 팔리기때문에 더욱싸다
◉첫재安心 그리고注文에買便이되여販賣하는여러분의
高級腕 瑞西製 新三昧
セイコーシャ地方時計部 振替東京八二四五四番 東京淀橋區上落合二丁目
十ヶ年保險付
正確 時間 【鐵道省御用の】【ウオルサム】【エルジン】
クロム側懷中 クロム側腕卷(皮付) 十八金HK腕卷 ウオルサム懷中

科 咽喉鼻耳 姜
醫學博士 姜日永
京城仁寺町一三七 電光三一七〇番
入院室完備

フマキラー 理想の強力殺虫液

털나는藥 후미나인
博士創製한 털나는약
禿頭病●白禿●薄毛●脫毛●가리매버서진데●흥섬한데●男女눈섭이적어보기흉한이는 꼭쓰라
價五十錢、九十錢、一圓五十錢 (全國到處의藥店에잇슴)
發賣元 東京藥院

두번업는일
宮田製品自轉車 ギヤエム號(遞信省拂下品)一臺 二十圓에讓渡함
二十六吋赤塗 A 二〇圓也
ギヤエム號 B 二五圓也
前後ブレキー式 C 三〇圓也
二十六吋赤塗 A 二五圓也
キヤエム號
コスター式 B 三〇圓也
二十六吋赤塗、ギヤエム號 リムメッキスポーク新品付 但前後ブリキ及コスター式共同値 三五圓也
特典三十臺以上注文하시면二百臺에 限하야 一臺價格마다 五分割引함
注文하시는法
東京市向島區東三ノ一六 クラウン工業所 振替東京三三五〇三番

パエロット高級萬年筆
耐久三十年 非常時局下 賢明한節約
¥2.00以上 透明軸 ¥3.00以上
パエロット高級萬年筆 特約店 楠商店 京城鍾路二丁目二十七番地 電話光化門三九六番

神經痛 류마치스에 ネウロジン (金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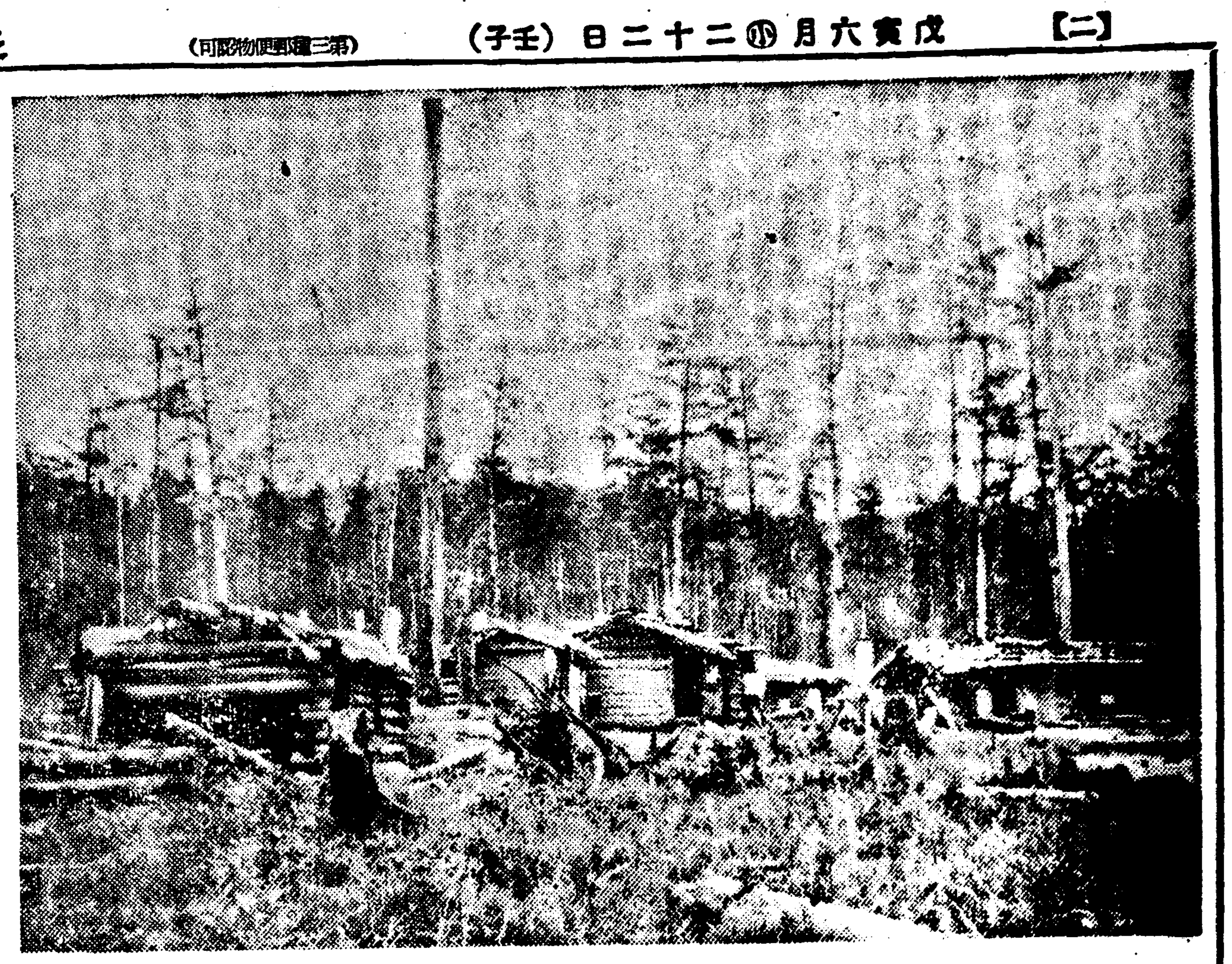
アモンパパヤ
藥用크림의藥効로 굳은信用을엇다!!
(1)여드름 (2)죽은깨 (3)기미除去 (4)볏꺼름
粉末 パパヤ洗粉 藥用洗粉 パパヤ를愛用해주시요
여름의淸爽美容에는姉妹品

鴨江源流를더드머 大密林中夜行百里

猛獸하품소리도들릴듯한崔哥嶺伐材場

山班 第一站 胞胎山 ❶

文 李鍾模 寫 崔鍾淵



백두산(白頭山)과 마로고진 포태산(胞胎山)도 섬섬산북에 천고의신비를 감춘지북을 깨트리고, 메아리울리는 소리! 나서크고커서 그대로썩어넘어지는 원시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들리는 도끼소리! 너머지서 나가는 밋밋이 자른아름넘는나무를 수없이찍어내는 이소리를 자저압록강(鴨綠江)의원류인 어느상개천가에서서 서대의장을듣는숙세의더운도모르는 벌부(伐夫)생활에 귀를기우리기로한다

여기는 포태산(胞胎山)을기최 가령(崔哥嶺)이다 조선산악의조종 백두산줄기가서남으로 나려와서 포태산이되고 포태산줄기가 다시서쪽으로 뻐더서 이최가령이 우뚝솟게된것이다 고개이쪽은 갑산(甲山)땅이며 이고개를 넘으면 무산(茂山)땅이다 또무산쪽으로 사십여리에는 백두산 물머리의 삼지연(三池淵)도 가까이 잇다 마천산중에울창한 송림이 삼태가티 빽빽히 서잇스니 글자대로 밀림지대(密林地帶)이다 이고개마루에인가(人家)라고는 이십여년전부터 이고개로 넘고나리는 보향객을상대로하고잇는 여인숙한집이 잇슬뿐이요 그밖게는 근년에생긴영림서(營林署)의 벌목(伐木)작업장이잇슬뿐이다 처다보아도 쪼각하늘이 숲사이로 겨우보일듯말듯하다 이골작이에서 한가닥의 냇물이흘르고잇스니 이것은 저국경이천여리에 유구히흘르고잇는 압록강상류의한줄기인 가림천(佳林川)이다 기픈골쪽에서 이름모를새들은노래하고 맹수들의하품소리도 얼핏이 들릴듯한곳이다 인간잇는곳에 산이잇스되 산잇는이곳엔 인간이 희귀하다 우리는 이곳을 자저서저 해발일천사오백미돌의 노픈산북대기를흘렷다 나렷다하는 혜산선(惠山線)철도를 돌파하고 험악한공기가 떠돌고잇는 압록강가으로 자동차를달렷다 보천보(普天堡)비적(匪賊)사건의 지내간 이야기를듯고 이지방일대의 무시무시한 기분드니 젓스나 내친거름으로쫏다저나려 고대진평(大鎭坪)으로 부러는도 본조해진이다 대진평 주재소에서는 우리일행에게 경비대를 딸려서 정을한다 우리는 구지 사절하엿다 거기서등건대 최가령까지 팔십여리에 사람사는곳이리라고는 엽고 호랑이꿈이리 산도아지 가튼 맹수들도 가끔 출몰하거니와 강건너만주따에서 드러온 비적떼가 아직도 이산을 부근에 잠복하고잇는 흐름이 엇더한가 우리는설마 어떠라하고 용기를 내여나섯지마는 파면 무서운 생각이 나기도하엿다 섬멋가는 한가닥 험한 길을 따라 자꾸 골작이로 드러갓다 우리두 사람은 오직 입을 다물고 침묵의 행진을 계속한다 이엇다 를 이 마조 처다 볼 때 긴장한얼굴비 출 서로줌 결수업섯다 떠케 비적이안이나와서 덤벼든다면 어가 덤빈다면 무슨피로 피신할까 발사욱은 전전보다 머리는복잡한생각이 떠돈다 상공의 헤는별지의 해보다빨리 지는듯 어느사이에 벌서어두사리가 땅우를더퍼오다 나리는 비가먹구니

산우에의 밤은 떨이진은 구름흘어처고맛곳 웃는듯이 내여다보다 그러나 섬을구지구름이 가끔 가리워서우리의앞길을 방해한다 이제는 밤이다 사방은 또 소리잘리보았자 사람의자최는 자취업다 해는 동에붓다시피비어 허기가나고 발은 부르터서천근이나 될듯무겁다 그러나 중도에서 노숙도할수업는 형편이다 설령비적이 나오지안는다드라도 증생이무섭다 이곳까지와서 증생의 밥이되여서야 될일인가 업는기운을 힘껏내여다 더구나 나보다 「굼파스」가 짧은 사진반최군을 소리처서독려하엿다 최군도사세어쩔수업는 것을각오한터이라 발자욱을자주 떼여노하서 다름박질을친다 가끔나무 베여넘 마른뿌리가 발비처 비치여서 우리시선을 현혹케하야 사람이나 여호가 뛰구리고 안저잇는것처럼 보인다 어떤때마다 소리를 질러 정신을차리지마는 머리끗치 주뼛해지고 뚱에서는 찬땀이 쫄쫄흐름을 막을수업섯다 어떠케나뛰어거럿는지 밤열두시가 가까이 되엿슬지음에 목적지 최가령에 겨우 도달하엿다 이곳에는 영림서의 작업장이 잇서서 벌목을하야 떼목을엮거서 가림천으로떼워흘리하류 혜산진 신의주 방면으로운재하는것이다 이산중에서 베여내는나무의 종류는 적송(赤松) 당송(唐松) 황엽송(黃葉松) 침엽송(針葉松)등의 소나무와 백화(白樺)종류들이다 영림서에서 채벌하는부분과 민간게불하하야 채벌케하는 부분이 잇는데 이골작이에서는 전부영림서에서 벌채하야 관용재목으로 신의주로 운반해 보내는것이다 이관용재목은 엄청한 적재(尺材)도만드는 규격(規格)재목이어서 신의주까지 떼목으로 보내기만하면 그냥그대로 북지방면으로 배나기차로 수송되야 철도와 교량가설에 척수가 드며맛게 소용되는것이다 어려설산궁곡에서 벌목부의 손으로 한개 두개씩베여낸 나무가 멀리 바다를건느고 산을넘어서 북지나의 병참지로 건설의재료가 되여 갈을몃백에야 어찌공연을 생각하여볼수잇섯스랴 근대문명의우렁찬아래는이천고에 도끼가도 머가지안흔처녀림(處女林)도 여지업시 정복을당하야 뜻하지못하던 머나먼이국으로 시집을가게되는 것이다 ―계속―

(사진은 최가령산중에잇는 벌목인부들의거처하는 통나무집)

物資難에우는商人!

市內五百店鋪困境

皮革、綿絲布、紙類業者等의 救濟策을京城府서講究中

전시경제의 바람이 한번불자 각종산업부문이 이에휩쓸려 그밧는영향이 자못심각하야 이미 부내에서도 이십여고무공장이거지반다 휴업상태에빠지고 이에따라 고무신가개며 고무초靴의 점포들이 비명을올린지도 벌써 오래전인데 이밧게 이십여의피혁(皮革)공장과 각양화제작소등도 역시적지안흔 충동을바다오고 또 뒤니어 면사포(綿絲布)지류(紙類)등의 공장 점포가속속 그영향권내에서 허덕이게되엿다 현재부내산업의 상당한분야와 이에따른 각상인들이자못 큰난관에 다달어 잇는터임으로 경성부권업과에서는 이들 상공업자들을 구제하고저 그지도기관에잇는 오십여명과 더부러좌담회를 열어서 박금간부문으로 분과회(分科會)까지열고 협의를 거듭하고 잇는중이다 부내이십구개 고무공장과 이천여 직공들의 생활문제는 그만해도 벌써기억에 오랜일이거니와 최근 경성부의 조사에 의하야보면피혁류(皮革類)를 판매하는 점포가오십개소이고 면사면포(綿絲綿布)의판매업자가 일백십일개소이며 지류(紙類)점포가 일백육십오개소에 달하고 또고무신구두상점이 이백곳이 넘으니만치이들오백여 상점이 적지안흔 곤난을 밧게되엿고 그밧게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수이어서현재이들의 구제여하가 여간큰문제가아니다 박금이들의게그근본문제인 원료난(原料難)을 해소식힐수는 전연불가능한 일이므로 시국산업또는 가능한 범위의 유망한 종목으로 전환시키는것이 가장긴한것으로 되여잇다 이리하야 경성부에서는 박금그들의곤경을 조사하야 그구제를강구하야서 그들로하여금 여전히생업보국에 매진할수잇도록 하기위하야 그알선지도에 적극 진출하게되엿다

聖峯映畵園을노코 "朝映"과"東寶"暗鬪

松竹系의策動? 歸結注目

외국영화의 수입금지에 따라 동경자본이 조선에 흘너드러오는동시에 기술과 자본의 완전한 혜택을입게된 조선영화계는 한동안 활발한 기업형태로가의 발전을 보게된요지음 가장유리한 조건미테 노혀잇는 영화제작소(映畵製作所)하나를 가운데노코 조선영화계에 큰진단 와 조선영화주식회사와 동경의거대한 영화자본 동보(東寶)와의사이에 차웅이 버러젓다

압루의 시초는 지금으로부터 한달전 오카중순에 동보와관련하야 그것의 조선부로터순으로서 역할을하고잇는 성봉영화원(聖峯映畵園)에 동대문서 고등계에 근무하던 백형건(白亨健)씨가 동서를 사직하고 그외친족들의 출자로하야 성봉영화원에삼만원을 출자하는 동시에사장으로 취임하야 영화제작소로서완전한 조직을 꾸미고 이섯다.

성봉영화원은 "나그네"를제작하야 힘든한이래 동보와 타협하야 "군용열차"를 시장에내여노코 의정부(議政府)에 완전한「로-키이셴」을 만드럿무엇스며 조선연극 연기자(演技者) 몽팡나하야 전속으로 하고잇스나자금难만한 제작비가업서서 애쓰던중이라 전기백씨의출자를 용납하는동시에 동인제(同人制)로잇던것을 법인조직으로 변태시킬준비를 하고잇서서 동보(東寶)측파의 양해도 성립될지음최근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백씨의 개인자본이아니고 조선영화주식회사(朝鮮映畵株式會社)최남주(崔南柱)씨와 조종으로 백형곤씨가 성봉영화원으로 하야금 조영(朝映)파의 한봉공작을 전제한 일종정치공작이갓이 관명되자 전기동인(同人)들은 새삼스리 놀래여 동보와함께 성봉으로하야금 매신되지안케하려고분개가 표면화되엿스니 조영의 비밀공작의 배후에는 조영난측으로서의 공작보다도 동경의 송죽(松竹)계의 손이움직이의 잇지나안나하야 영화계의물의를 이르키는동시에그귀결이주목된다

小磯前軍司令官京城驛出發光景 (昨日夕刊參照)

職人風老人 海軍에獻金

십팔일종로서에 동향(東鄕)해군어용패를 밧들한 직인종의한 노인이『내아들은 선원인데 해군의 은덕으로 무사히지내고잇습니다 약소하지만 국방비로바칩니다』하고 금삼원을 헌납하고갓다 그노인은 부내황금정오정목의 송경필(宋景弼)씨(五十)라

白衣勇士 28名今朝着

폭지웅장의 섬전에 혁혁한부훈을세운 명예의전상병한 백의용사이십팔명은 십구일조전일곱시삼분 용산역에 도착하는열차로 귀환 용산병원에 드러갈예정이다

商工省警告!

百貨店에또痛棒

流行品創案도말라

【東京電話同盟】소비절약을 호령하고잇는상공성(商工省)에서는『유행의책원지』인 백화점에국책적자숙(自肅)을 경고하엿다! 벌써전에주원매출금지 동제품의증정금지경품부대판매금지의 세가지명령을내린이후 이번에다시 재유행의 창안(創案)을 그만두라고 경고를발하기로되엿다 원래 백화점에서는 여러가지유행품을 맨드러가지고는 선전하여드려서 일반소비자 특히여자들의 허영심을불어이르키게한다 이리하야 작년것이올에는 벌서 케케묵은 옛날것이라고 내던지는 고약한습관이 생기는터로 소비절약의 실천이 요구되는 이때에 이런것을할것이못된다하야 일반의 각성을촉진하려니와 우선백화점측의 자숙을 경고하기로 된것이다 그리하야 십팔일 오후상공성 말영(末永)상공과장은 승전(勝田)백화점조합이사장을 불러서경고를 발하엿다

日本電力問題 數日中에大進展?

"消費節約實踐에背馳"

【東京電話同盟】전력문제에관하야동서 서로응응、일본전력(日本電力)내등(內藤)부사장이하수뇌부를 검거취조중의 경시청수사과에서는 십팔일 오전 열한시부터 안전(岸田) 태전(太田) 두검사외에 강기(岡崎)과장 청수(淸水)계장이하 관계관이 모여협의회를 열엇는데 이미동상한 간부계자의 진술에 의하여 쓸곳이불명한돈이 수백만원으로추전되는 돈이상영하 지출된 것외에 전력문제에 배전되엿다고 보이는의사의 이름까지나타낫스므로 이에따라 정치문제는 전혀면제도에드러간 느낌이 잇서 수일안에 대진전을보게될것으로 관측된다

人夫監督被殺

【三陟支局特電】십팔일오후 강원도삼척군북삼면송정리(三陟郡北三面松亭里)삼철(三鐵)갈녹 황동규(黃東奎)는 개업이부 김봉문(金奉文)에게 칼로 찔려 죽엇다

日·獨·伊三國競技도 中止를決定

準備委員會全體會議에서

【東京電話同盟】일독이교환경기회(日獨伊交驩競技會)준비위원회는 십팔일오후한시부터 전체회의를열고 북택(北澤)상임위원으로부터 지난십일일의 간부회의경과와및 결정사항을보고하고 어떠다한협의한결과 상임위원회의 결정과가티 동경올림픽대회반기에 비추어 삼국경기도 중지하기로 정식결정하엿다

十一歲少年 水泳中溺死

시내원정(元町)삼정목이백육십오번지 이인복(李仁福)씨 둘재아들 기봉(基鳳)(十一)이는 십칠일오후네시경에 한강(漢江)에서 수영하다가 빠저죽엇다

촌뚝

대경성안복판에임자업는시계가 사흘이나 버려두재 그대로 썩어다네그려

○ 부청인부、오직바쁜가 게울너서일부러야 그랫슬나구

○ 전염병이유행하는 이하절에 예방주사는 새로히 전염공작을 일부로라도 이러케 할수잇슬라고!

○ 하이칼나머리를 뻬뻬까고 중머리 할보시다라……

○ 맥속에 드러잇는 허영심도까까버렷스면 작히나 조흘까

○ 유행의 책원지(策源地)부인네 허영심의 친정을되는 백화점에 경고를 보내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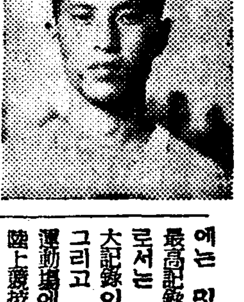
○ 바다를 건너온 솔문이라 듯기에도 시원하군.

曆

▲七月十九日(火曜)陰六月二十二日 ▲干支 壬子 ▲日出 午前五時二十六分 ▲日南中 午後零時四十分 ▲日入 午後七時五十三分 ▲晝間 十四時二十六分 ▲月出 午後十一時十一分 ▲月入 午前十一時三十四分 ▲滿潮(仁川)午前九時와午後九時三〇分

走幅跳에七米五四 金源權君의偉動

大連서열린日滿對抗戰에서



【大連에서孫基禎君發電】全日本對全滿洲對抗 陸上競技大會는十八日正午부터 大連運動場에서行한바 이날 走幅跳에 日本代表로出戰한 金源權君(普專)은 大宮, 大江, 岡本, 岡田, 張星賢(普專)과짝을지어 출장하엿는데 七米五四의 滿洲及朝鮮新記錄으로 優勝하야 快氣焰을 吐하엿다 이記錄은 日本最高記錄 七米九八에는 멋지못하나 今年드러서는 最高記錄인同時에 朝鮮出身選手로서는 처음으로作成한 世界的大記錄이다 그리고 金君은 지난三日 京城運動場에서열린 一般對專門對抗陸上競技大會에서 三段跳에 十五米三〇이란 驚異的 記錄을지은바이섯다 (寫眞은 金源權君)

金裕澤君一着 全日本高商陸上에

【東京電話同盟】第七回全日本高商陸上競技大會第二日은 十七日國立商大競技場에서 擧行한바 金裕澤君(高商)은 百米에 十一秒로 第一着을 차지하야 七點을 어더 總得點十三點을 獲得하엿다한다

中等庭球리-그戰 善隣軍連覇

京城中等學校庭球聯盟主催의 第十九回 京城中等庭球리-그第二日은 十七日午前八時부터 善隣商業코-트에서 열린바 善隣이 總得點 百點을 獲得하야 連覇하엿스며 龍中이九九點으로第二位를獲得하엿스나 景中이 養正을 이겨 스크로 第三位는 景中이차지하고 養正은 멋쌁게도 第四位에處하게되엿다

東京大相撲六日戰績

[勝者]		[敗者]
名寄岩	……	大邱山
羽黒山	……	鶴岩
男女川	……	鏡岩
雙葉山	……	前田山

(打出午後六時二十分)

講武館暑期練習

朝鮮講武館에서는 例年과가티 柔道暑期練習을 七月二十二日부터 一個月間 行할터이라한다 그리고 二十二日午后九時에는 緊急有段者會를 열터이라한다

關西學院卓球優勝

【京都電話同盟】第十三回高專門學校卓球大會第二日…專門部戰은 十八日午前八時부터 京大學生集會所에서 擧行한바 結局關西學院이 優勝하엿다

▲準決勝 早稻田專門部3…2普成專門 關西學院3…2東京齒專

▲決勝 關西學院3…2早稻田專門部

今日의運動

▲硬式庭球=朝鮮庭球聯盟主催早大對全朝鮮對抗庭球戰 正午 京城運動場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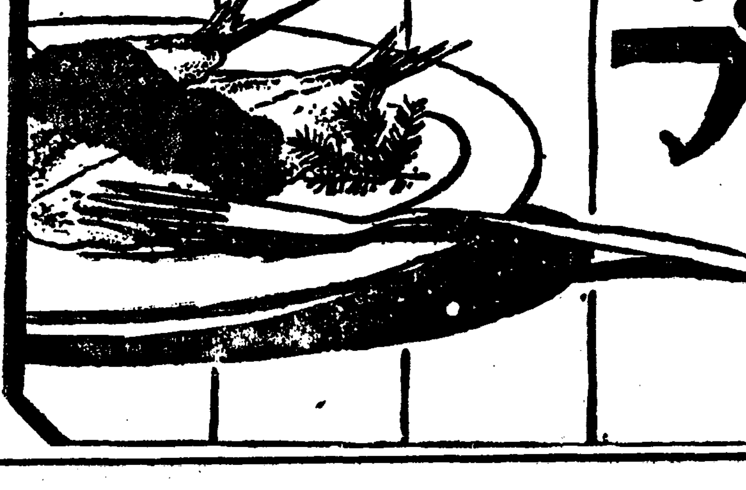
最新强壯剤 フロロトン

牙山支局 溫陽溫泉驛前 取次電話一〇五

カゴメ ケチャップ

美味・經濟 食慾・增進

現代人이질기는 トマト의調味料



カゴメソース本舗 愛知トマト製造株式會社 名古屋市外上野村

戀愛와結婚、男女相愛의知識 (發行所로直接注文하시오)

改正再版 夫婦性愛讀本 入解圖

特價 金一圓三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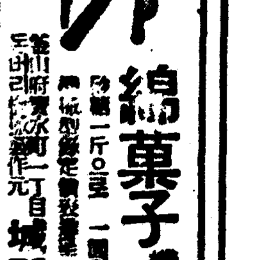
切手代用一割增代金引換을 바라는분은送料切手二十錢을보내주시라요

男女의性愛知識을 이야말로 詳細하게 說明한 이제까지 刊行되지안흔 男女相愛의 寶典

發行所 東京市中野區本町通り六ノ三十號 振替東京三九七六七番 太陽出版社

眼科 耳鼻咽喉科 專門

平壤府巡營里 南山醫院 醫師 金致九 (入院室完備)



綿菓子機械出現

城野製作所

中部版

國民精神總動員 長湍郡聯盟結成

【長湍】장기전체제하에 대한 총후의 정비하야집에가하야 장단군에서는 국민정신총동원연맹(國民精神總動員長湍郡聯盟)을 결성하고저 군미회제가되여 [illegible] 장단신사에서 성대히 거행하얏는데 임원역원은 다음과갓다

會長 [illegible] 副會長 [illegible] 平山[illegible] 理事 吳[illegible] 下形長 [illegible] 李[illegible]九 [illegible] 評議員各面長 三好理事 大橋所長 金東[illegible] 中[illegible] 學校長 [illegible]

雨期이자傳染病期에 汚穢物은積滯腐敗 處置府營後도仁川不潔

【仁川】십일만부민의 위생에산파역인 인천부 위생계에서는오물(汚物)소제를 종래에 청부시키던것을 성적이불량하다고 지난사월 일일부터 부직영(直營)으로 실시한후 오물소제로는한집도 남기지안코 징수하면서도 거리마다 오물이 여전히산적하야장마기에 이르러 십이만부민의위생상막대한영향을끼칠을 예도부당국으로써 등한시함으로 거리마다 차현을쌓은 장마를지나도 처가지안어 썩어악취와 장충이 이러해인의코를찌르게한다 이에대하야 부민의비난이 적지안흔데도 불구하고 전의생비로매호당일전 내지 삼전씩을 월징수하여 가면서도 하수구(下水溝)에 소독한번 치는일이 업스므로 전염병기를당한 부민은 하로 이염병균의적리(赤痢)환자가 인천에 발생하는이때에 실로 일대공포를 느끼고잇다

죽은아우爲해 兄은食飮全廢

【蘇萊】부천군소래면방산리(富川郡蘇萊面芳山里)에서 동무끼리 히롱하다가 십이세소년이 십세소년을 살해하엿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그후소식을 탐문한바에 의하면 피해된 김소년의둘째형 송태(宋泰)(？)군은 자기아우가 유소년에게 피해되자직시 불쾌에 넘치는 정으로그 부모와가티 어찌하면 아우를구할가하야 애를태울뿐아니라 식음까지 전폐하엿다한다 그리자 아우의 불행을 못보고 아우를부르며 통곡하는양은 보는 사람으로하여금 눈물을 금치못하게 한다는데 식음까지 전폐하므로 그부모는 염려함을 마지안는다 하며 일반은 그형제애에 크게 감탄하는동시그정경을 매우 가궁히여인다

銃後美談

【楊州】지난십오일의 정부연초중량소매인표창식을 마친뒤에 소매인 박봉국(朴鳳國)씨의 제의로지나에 출정하야 백여도 고열에분투하는황군장사에게 위문대(慰問袋)를 보내자는 제의에 소매인이백여명의 찬성으로 매인십전씩 거출하야 판매소장 내등이측(內藤利則)씨에게 일임하얏다

竹山에서蹴球大會

【竹山】안성군 죽산축구구락부(安城郡竹山蹴球俱樂部)에서는 오는 팔월칠、팔양일의 량일간 동아조선양지국후원(東亞朝鮮兩支局後援)하에 전선축구대회(全鮮蹴球大會)를 개최하는데 각단체 참가금 삼원이고 신입기간이 팔월칠일오전십시까지이며 대성황을 일울것인바 만히참가하기를 희망한다

學院增築工事에 六十日間勞力으로奉仕 安城沈彦國氏의特志

【竹山】경기도 용인군외사면석천리 근영학원(龍仁郡外西面石川里 槿英學院)은 창립이래 칠주년에 특별한재원이업스므로 당지유지들이 꾸준히노력하야 물품행상등 여러가지근고로 경영하엿는데 금년봄에는 삼십명신입학생모집에 지원자 백삼십여명에달하므로 주민들은 크게유감으로 생각하야 유지에게 동정을어더서 학원을 증축하는데 안성군삼죽면 율곡리 심언국(安城郡三竹面栗谷里 沈彦國)(？)이라는 몸수는 아동교육을 위하야 자진하야 유지설비안을 무료로 노동하야준 아름다운사실이잇다 전기심씨는 자기생활에 곤란함도불구하고 지지일에 육체노동을하야 교육사업에 동정하얏스므로 일반은칭송하야 마지안는다

仁川鎭南浦間에 定期航路開設 十八日泰福丸就航

【仁川】인천부 변정(辨町)에잇는 대파조(大坂組)에서는 다년간 현안중이던 인천—진남포(仁川—鎭南浦)간의 정기항로를개설하려고 부안중이더니 금번에 대파조와 반야상사회사(?)와의 제휴로 지난십팔일에 인천항에 입항하는 태복환(泰福丸)을 기회로 그항로의 개설을 보게 되엿다 태복환은 매월삼회로 인천 진남포를 왕래하리라는바 화물은대부분이 백미(百米)석탄을 주로 운수하게 되엿다 비상시국에잇서서 해운계 그항로는 인천항으로써의만흔기대를 가진바로 일반은 그항로선의 활약을 바라는바이라하며 십팔일부터 인천、진남포사이의 처녀항행을 개시하엿다

地方人事

▲沈[illegible]氏(開城府[illegible]長)新任人事次 本社開城支局來訪
▲安[illegible]氏(開城府[illegible])同上
▲李光[illegible]氏(竹山小學校[illegible])新任人事次本社竹山支局來訪
▲[illegible]二氏(楊州[illegible])新任人事次本社楊州支局來訪
▲[illegible]氏(金浦郡守)兪鎭植氏讚賀會參席次來江本社江華支局來訪
▲黃[illegible]天氏(友石讚賀會長)兪鎭植氏讚賀會無事終了人事次同上
▲劉智榮氏(木曜會總務幹事)同上
▲朴秉陽氏(木曜會調査部長)同上
▲金[illegible]氏(朝鮮信託江華出張所長)新任人事次同上

藥단苦草粉嚴禁 仁川署에서徹底團束

【仁川】인천에서 사용되는 고초가루는 인천부내 각제분소에서 작업을하야 소매상과 지방에까지보내는데 최근에는 고초를작만할때 다른약품을 석거서 제분하야 위생상의영양을 끼치는일이 만흠으로 인천서위생계에서는 십팔일에 부내각제분업자를소환하야 고초만제분코 약품을 사용치못하도록 엄중설유하엿다 만약위반할때에는 용서업시 처벌하리라하며 부내각파출소에 통첩하고 제분한고초가루를 일일히검사한후 위생상별해가업서야판매케되리라하며 일반가정에서도 만흔주의를 하기바란다고한다

蘇萊尋常小學校 二十日夏季休學

【蘇萊】부천군소래공립심상소학교(富川郡蘇萊小學校)는 오는이십일부터 하기휴학을 한다는데 일반가정 아동들의 하절의생을 극히 주의시키기를바란다고한다

五人組賭博團

오인조의 도박단이 본정서에 자펏다 십칠일 새벽두시경남대문시장 태성상회(泰成商會)이층에서 하왕십리정(下往十里町)김배외네사람이 화투도박을 하다가 본정서원에게 현장체포를 당하고 판돈 오십칠원 이십삼전이압수되여서 엄중한 취조를받고잇는데 판계자의성명은다음과갓다
▲下往十里町三三五吳相健(?)▲南米倉町一三四黃東顯(?)▲三坂通三〇四高華根(?)▲鮒洞町一五〇의一朴鳳萬(?)▲南米倉町一二八李鳳龍(?)

今春海龍丸遭難者 廿七名의慰靈祭 廿三日仁川에서擧行

【仁川】인천연해의 참사로서당시의 해운계에다대한충동을 주엇든 금년삼월십구일에 충남서산군(忠南瑞山)근해 황금도(黃金島)와 가의도(加誼島)사이에 침몰된 조선운송주식회사(朝運)소속선인 해룡환(海龍丸)사십오톤에서조란된 선객이십이명과 선원오명이 어복에장사된이래 사개월이지낫스므로 조운회사에서는오는이십삼일오후 네시부터 인천부궁정(旭町)에잇는 서본원사(西本願寺)에서 위령제(慰靈祭)를 집행하야 이십칠명의 명복(冥福)을 빌리라한다 사의 보람이 잇는듯한 기상이 더욱 참혹한 희생을 감격시키엿다 식이 끗난자 기념촬영이

躍進仁川工業界에 熟練工爭奪激烈 關係者는對策에腐心

【仁川】공업도시로써 발전도상에잇는 인천부내의 각공장에는 숙련직공의 이동이격심하야 예상이상의 수를점령하고잇다 그들숙련공중에는 자기의 수입이 만히되기위하야 각공장에서 임금(賃金)을 만히바드려고 이공장에서 저공장으로 옮기는 인사동태가 만흠으로 각공장측에서도 숙련공을 어드려고 될수잇는대로 직공대우에 주력을하여 오기때문에 직공쟁탈전이 되여오는형편임으로그방지에대하야 인천공업구락부(仁川工業俱樂部)에서는조종협의해오는데도 불구하고여전히직공의 이동이 격심하여짐으로 금후 각공장이지출되면 더욱쟁탈은 격렬하여 질것으로 그결과는 결국임금 인상이대두할것이며 그반면에는 공장판리가 곤란하야 인천공업발전에장해가만흘터이므로써 판계당국에서도 이문제를 수정하기위하야철저히 방지에강구중이다

蘇萊警察官駐在所 第四回時局座談會

【蘇萊】소래경찰관주재소(蘇萊駐在所)에서는 현하비상시에잇서 총후국민의 의무와 근로보국에 대한여러가지 시국인식을 철저이 시키기 위하야 중야부장(中野部長)은 이공(李孔)양순사와 십이일부터 제사회로 판내각부락에 순회강연을 한다는데 팔월십사일까지 시일이 걸릴터이라고한다

江華發展의功勞者 兪鎭植翁讚賀會 十六日、盛大히擧行

【江華】기보=우석유진식(友石兪鎭植)씨는 강화 발전에 가장 유공한분으로 한때는 신문인으로 로 상인으로 운수업으로 그의 반생을 받치여 오늘에 강화를 건설한분임은 자타가 공인하는바로써 경모의 표적이되여강화도민들은 그의공로의 한모퉁이나마 보답코자 지난 십륙일오후한시부터 강화읍부군청사내에서 씨의 찬하회를 개최하얏는바 경성(京城)연백(延白)등지를 필두로하야 군내각방면의 유지가 모여서 공전의 성황을 이루엇다 정각이되자 주최측인 목요회(木曜會)대표 [illegible]씨로부터 간단한 개회사가잇섯고 이어서 씨의 양력을 찬하회장 황[illegible]천씨가 소개하엿고 래빈측으로 강화군수와 김포군수 권갑중(金浦郡守權甲重)씨 [illegible] 조양방직주식회사장 홍재묵(朝陽紡織株式會社長洪在默)씨등의 축사가 잇섯고 끄트로 우석유진식씨의 사사는 씨의 눈물겨운 반생과 씨와서의인용 [illegible] 잇섯고 축하연에 나아가 주객간에 환희가 넘처흘너 파연하엿다 가장 아름다운 기록을 남기고 무사히 동오후 세시나 되어서 산회하얏다

(寫眞은 表彰狀을 밧는 友石 兪鎭植氏와 讚賀會의全景)

水道不凍의 裝置機發明 仁川府土木課長研究

【仁川】인천부 토목과장 수산(守山)씨는 엄동에 잇서서 만흔 수도결빙으로 일반가정에서도 곤란하든것을 저욕히 방지하려고 급수부분으로 급수전부동장치(給水栓不凍裝置)를고안하야 조선특허대리국에 대하야 실용신안특허를 제출하얏든바 얼마전 조사의결과로 제오대로 실용신안등록이 되엿다 그장치는 소량의 경비(經費)에 의하야 결빙을 완전히방지할수잇다는바 일반가정에서도 만흔편의를 볼리라한다

線路우에置石 兒戲로遂判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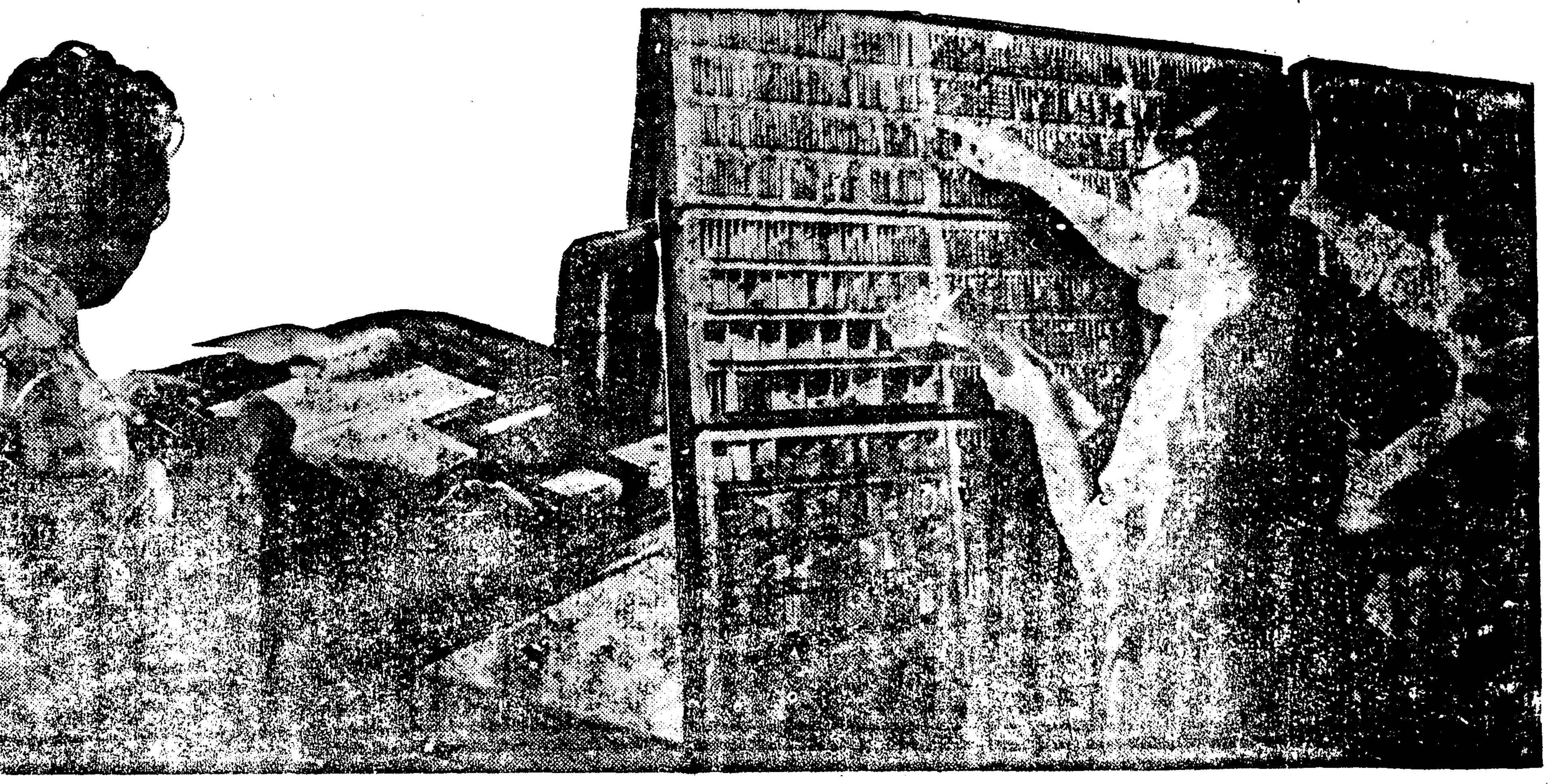
【楊州】어린아이작난으로 수백생명을 기차를전복시킬번한 중대한 사실이잇스니 부역원자주의한바—지난사일정오에 경원선(京元線)의정부역(議政府驛)과 [illegible] 제오일이호열차가 의정부(議政府)역사이 중간에서 탈선되여 기관차앞바퀴두개가 떠러저다라낫스나 다행히 인명사상은업섯스나 어름할미아마 세시간이상 연착되여 일시는 대혼잡을 이르켯다 그런데 탈선사고에 대하야 양주경찰서(楊州署)원이 현장에 달려가서 조사한결과 양주군 주내면 산북리(楊州郡州內面山北里)송흥봉(宋興奉)(?)의 동리 송이길(宋二吉)의 두아이가 선로에 돌을올려 놋다가 『레ー루』우에다노코 기차가 탈선이 되나 이깨지나 호기심으로 작난한것이 판명되여 보호자되는 친부를 구류에 처하얏다한다

振興會舘落成 韓維鎬氏特志로

【楊州】양주군 양주면 유양리탑석진흥회(楊州郡楊州面[illegible]里塔石振興會)는 오개년이넘도록 저비한경영으로 정회장인 [illegible]이언서 회장개인 한유호(韓維鎬)씨와 밋회원간 협력으로 지내든중 당지에 다소간토지를가진 경성부판수정일팔사 한유진(韓維鎭)씨가 이를주선하야 금춘에건축비 오백원을자담하야 건축중이던바 이번에 낙성식을 성대히거행한 회원일동은 감격하고 씨의후의에 은배(銀杯)한벌을 보내엿다

이웃집에放火 消火틈에窃盜 華川署에서犯人搜査中

【華川】이웃집에다가 불을노코 동리사람들이 불끄느라고 모여든틈을타서 남의세간을 훔쳐가지고 다라나든 화천군 화천면 풍산리(華川郡華川面豊山里)주영장(朱榮長)(？)이란자는 지난십육일 오전두시경 화천군동면 각곡리(東面覺谷里)박기주(朴基周)리이우(李利雨)이봉우등의집에불을질러서터케하고 동리사람들이 불을끄러 모혀든틈을타서 이봉우(李鳳雨)집에 침입하야 갱택이불등을 훔쳐가지고 경성방면으로 도망한형적이잇다하야 화천서에서는 범인을 수배중이다



植物호르몬의應用으로 體力이부러 疲勞안는몸이되는研究

早老、腺病質、胃腸病 病後衰弱에明確한療法

反應은 그날부터

곳疲勞하고、어깨、四肢가 쑤시고、머리가무거워、일를繼續할根氣가欠乏되고、讀書를해도、머리에드러가잔코、눈이아퍼오고하는따위、이러케疲勞가甚한狀態는그原因이、胃腸의障碍에 基因하든가、生來의體質의所致든가、年齡의關係든가、그러찬으면 身心을過度히쓴탓이든가겟는데 그것은하여튼、다단警戒를 要할衰徵이다。

=戰時= 日本에서는、平時의몃倍나일의能率를 올리잔호면안될텐데 이런脆弱한 體軀로는能率이 오로잔흘뿐아니다 일그自體가 苦痛이되여서 無理를하기때문에 健康도漸漸低下하게된다。

=기름= 이말러서、삐걱거리며끌려가는荷車를想像해보라、疲憊한體軀에該當하잔는가!。車軸에다똑하고한방울의 기름을 흘려너면、荷車는、미끄럽고 가볍게돌기시작한다。

植物호르몬活用劑 ネオネオギー를 먹기시작하면、身體에元氣가 차오는것은、植物호르몬이라는것이、一名細胞能動原이라고하는만큼 全身의細胞에活을넛는作用이잇기때문이다。

=ネオ= ネオギー에는、植物호르몬外에、貴重한 動物호르몬、人體에不可缺한 榮養素를配合해서다시、藥의形態를、고르는賦形藥으로 活性헤제를 加해잇기때문에、이둘의綜合作用으로 細胞는賦活되고호르몬作用은 旺盛하게되고、全身으로부터 疲勞素가除去되는代身에活力이 體內에漲溢해온다。ネオネオギー라는藥은、人體를가볍게돌리는 기름으로생각된다。

本品을 服用하면、食慾이들고나아가는데、이것은 胃腸의消化力을 亢進시키는外에、榮養의吸收를잘시키는 獨特한作用이發揮되기때문이어서 胃腸病잇는분、消化가나쁜분、食慾이나지안는분에게는 대단適切하다고생각한다。

=新陳= 代謝를旺盛히하고 몸에抵抗力을부치기때문에、結核菌에侵犯되어、治癒가느진분이나 腺病體質인분에게도 回復을速하게하는데 이보다더 조혼것은업다。빨리疲勞를잇고는元氣를、持續하려는분 勞務나讀書를根氣잇게 進涉시키려는분、早老、病後衰弱에 煩悶하는분에게는特히 薦擧하고십다。

購買에對해서

注意 約一月量金一圓五十錢、德用三圓과九圓、錠型粉狀의別이잇다。全國藥店에잇다。但植物호르몬藥은 日本에는 ネオネオギー一品뿐이니、반드시ネオネオギー라고指定購買하시라。研究所로 藥書를請求하시면 代金引換便으로보낸다。嚴重荷造해서急送하고送料는 研究所負擔이니 到着後에藥價만支拂하면조코。海外植民地는 振替東京五六八二一番으로拂込할것。

申込所 東京市日本橋區堀留町電停上二四 日本微生物研究所 (電話)浪花二二九五・三二九六番

研究所在地는 小石川區[illegible]日町에잇고 右記로移轉하다 (NN8D—2600)

ネオネオギー五周年記念愛用者奉仕

ネオネオギー買上時에반드시 抽籤券付 謝恩袋贈呈!!

奉仕期間 自昭和十三年五月十日 至同年八月十日

謝恩袋에는 愛用者奉仕抽籤券及二重特別景品으로左의四種의景品中一種封入되여잇습니다。
▲家庭常備藥リツカ ▲無物호ー크五本一組 ▲懷中노ー트 ▲特別玩具 ▲楊子入

奉仕抽籤券內容
壹等 高級十六미리映寫機 (필름映寫幕付) 二一六本
貳等 二色샤프펜실 (賞贈용케ー스入) 五七六〇本
抽籤期日 昭和十三年八月中 當選發表 同九月中新聞紙上
抽籤方法 總數를七十二組로나누어서、一組一萬本으로써抽籤

壹等景品=高級十六미리映寫機

植物ホルモン活用 ネオネオギー

一月量一圓五十錢 德用三圓 最德用九圓 全國藥店にあり

長篇小說

薄命 (52)

韓龍雲 作 鄭玄雄 畵

새주가 三

순영이는 송씨와 김선달의하는말이 자기를 도마위에 올려노코 가늘게 쓸까 굵게 쓸까 쟁가비에 지지까 솟에다 끄릴까 요리할 방식을 의론하는것인줄을 분명히 알엇다 또는기생은 어떤것이오 작부는 어떤것인줄도 아랏다 자기를 기생에 너치아니하고 작부로 보내라는것도 알엇다 자기를 작부로 보내기 위하야는 민적등본이 필요한것도 알엇다 송씨가 민적에 대한 말을 하고 면이틀을 무를 때에 벌써 그만한 눈치는 채엿다 그리하야 자기의사는 면이를 꿈이야 모르는것이 아니엿지마는 짐짓 모른다고 하엿다 그것은 한때의 모피하는것으로 그일을 아주 모면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엿스나 자기의 하고싶지 아니한 일인지라 일시라도 모른다고 한것이엿다 어넘 동안이나 여러아이들과 가치배우고 일반사회의 만반사정을 자연히 보고 듯고하는 사이에서 조흘리고 꺽기고 한 순영이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여러가지로 보아서 벌써 서울에 처음올때의 순영이는 아니엇다

순영이는 마루끄테 안젓다가 송씨와 김선달이 자기를 나가라고 하고서 가만가만 속삭이는것이 자기를 피하라는것인줄을 아는때에는 거까이 안저잇는것이 미안도하고 창피도 하얏다 그리하야 마당으로 나섯다 비오고 개인뒤의 가을 하늘은 거울가티 맑엇다 어디서인지 바람에 불려오는 포푸라나무 입새 한떼가 공중에서 회휘 돌다가 먼데로 가까운데로 흐터진다 더러는 자기집 마당으로 드러와서 개천에도 떠러지고 장독대에도 떠러지고 진흙에도 드러가고 흙은 자기의 품에도 떠러진다 순영이는 그입새들의 날아가고 날아오고하는것을 무심히 보다가 홀연히 자기의 신세가 그 낙엽과가튼것을 생각하엿다 그 엽새들은 한나무에 피엇다가 한때에 떠러저서 가는바람에 불려가다가 어떤놈은 멀리가고 어떤놈은 가까히가고 어떤놈은 정한데에 떠러지고 어떤놈은 더러운곳에 떠러지고 어떤놈은 광대한 너른 천지에 공교히도 근심잇는 자기의 품에와서 떠러지는것이 그것이 무슨 인연이나 우연이나 그러한것까지는 생각하라고도 못하엿지마는 자기가 강원도의 산골에서 서울까지 오게된것이 그와 도매상하거니와 장차무슨 바람에 어디로 불려가서 어떠한 곳에가떠러질런는지모르는것이 그 낙엽과 갓다고생각하얏다 만일 다른것이잇다면 낙엽은 엄사귀지마는 자기는 꽃치라고 할까 낙엽은 공중으로 나라가지마는 자기는 땅으로 간다고 할까 그것이 다르다고 할는지모르지마는 천지간에 정처업시 가는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얏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 괴로운것은 낙엽은 다행히 눈물이 업지마는 순영이는 불행히 눈물이 잇섯다 순영이는 자기의품에 떠러지는 업새를 주서들고 동정하는듯이 고요히 보앗다 그입새는 어느듯 저젓다 그것은 아까 온 빗방울에 저진것이아니라 지금 떠러진 순영이눈물방울에 저진것이엇다

『순영아』

하는 소리에 놀라서 도라보는 순영이는

『채란(彩蘭)이냐 어서오너란』

하고 급작이 눈물을 씻는다

『거기서 무얼하니?』

『가깝해서 나와 바람쏘인다』

『너 웨 우니?』

『울긴 웨울어』

『그럼웨 눈물을 흘렷니?』

『이러케 섯는대 엽새가 불려와서 눈알을 때리는구나 그래서 눈물이낫다』

순영이는 손으로 눈을 벼비다가 수건으로 눈을 씻는다.

『아니다 여에 울엇다 우는것 모르고 다처서 눈물 흘리는것 모르까 뭐』

채란이는 순영이를 자세히 보다가 귀에다 대이고

『너 애인이 잇는게로구나 애인 보고시퍼서 우니?』

하고 가만히 웃는다.

『망할것 그런소리는 잘하지』

순영이는 웃는 눈으로 흘긴다.

『너 나하고 장춘단에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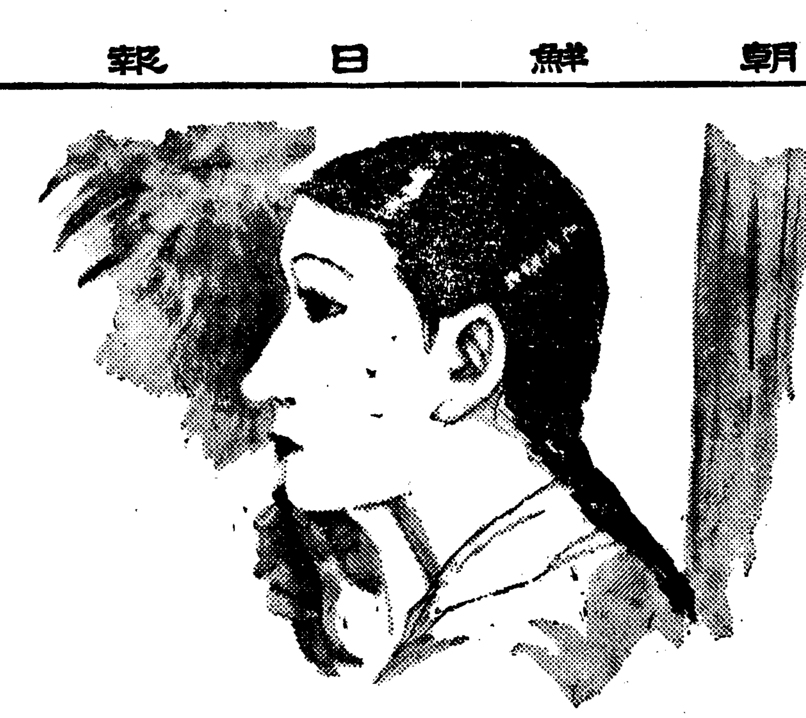
『장춘단에는 웨?』

『가서 구경두하고 산에가서소리도 외치고 하게』

그러지 아니하야도 자꾸하야서 어디로던지 나가고 시프던 순영이는 기회를 만난듯이 대번에 허락하고

『동무하고 나가다 오것서요』

하는 한마디를 송씨에게 남기고 채란이와 가치 나갓다



早稲田大學에 映畫博物館

演劇博物館과 竝立할 殿堂

早稲田大學에서는 世界에 자랑하는 演劇博物館을 가지고 잇섯는데 이번에새로이 映畫博物館을 創設하기로 되엿는바 爲先 이번가을 第一次事業으로 映畫陳列室을 두기로되엿다한다 이러計畫은 世界에도 그리만치못한일로서 벌써부터 珍奇하고도 貴重한材料가 連日蒐集되여잇다 그中에서 松竹、東寶를비롯하야 東和商事、三映社等 內外各配給所에서 提供된 貴重한 스틸만도 六百餘種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번이博物館을 새로 運設하는것은 將次 同大學內에 映畫學科를 設立하라는 事實을 具體化하는 第一步라고하는데어리하야 早稲田學園에는 演劇映畫를合친 새藝術殿堂이 생길려어라한다

여름입니다.

모두들 바다로갑니다.

그곳에선 물에젓길욕하느라고 白沙場을그리워하지요.

太陽의暴炎을 즐겨바드며 몸이깜해징을자랑하지요.

都會에선 그것을 부러워합니다다.

그러나 바다업는 白沙場엔 이런悲劇이잇답니다.

◇

사하라沙漠

가도가도 끗업는白沙場

떠걸은 흰모래、모래、모래!

太陽의暴炎은 더웁고 더웁고 덥지요

숨이맥킵니다 맥켜요

솜뭉이가튼 힌구름만 오락가락

우리가 설허하는비는 안옵니다

비대선 뻘이우박가티 쏘다지죠

도무지 목이탑군

焦熱의砂漠地帶에
이런悲劇도잇다오

李雲谷

[illegible] 그곳에 있지요 [illegible] 三十分만에 사람[illegible] 『각소리』[illegible] 무서운 [illegible]의 士人들이 [illegible]

◇

여기는 사하라沙漠의 한끄트 아안수마라—의屯所! 附近엔 士人軍이 [illegible] 물은十里밖에 [illegible] 하나 [illegible] 生班家의 白沙場이랍니다 그곳에 다라만손 中尉는 [illegible] 女子四十名에 女子[illegible] 그러나 그들은 [illegible] 『女子가왓다!女子가』 『女子의 [illegible]』 오늘[illegible]가지[illegible]하려는 그들은 『女子를 두고[illegible]하다니!』 [illegible]女子가 [illegible]하지못하게 하고은 [illegible] 때려쫏고 다려갈사람은 못부르게 [illegible] 부서버립니다 [illegible]의屯所가[illegible] 그리자 士人軍이 [illegible]해와서 [illegible]어버려집니다

몃시간後 그들의명보之一은 흰모래에 파뭇침니다。 그리고 셈과 그들의우물에는 士人들이 [illegible] 노화지요 이젠물이업습니다、물이! 몸은더집는마르고마픕니다 먼本隊에 援兵을請할려니 라디오가 안通합니다 士人軍이 屯所를둘러쌋습니다 援軍을請하러나가다죽는兵士 女子가조하하는 [illegible]기를 잡으러나갓다죽는兵士 [illegible]잇는물이 [illegible]고도

巴里서 아프리카로오자마자 部下四十名을 다려고옵니다 그의部下란 外人部隊中에서도 不良[illegible]인 中隊입니다 모두 마르세이유[illegible] 무서운 前科를 짓고온者들이죠

여동은 라르만손을 혼자만두고 저이들끼리만 이地獄을 脫走하자고 討論合니다 火藥、拳銃、地圖까지훔처 마츰내 準備는 다되엿습니다

◇

그때입니다!

어떤所에 女人이 헤사합니다 낫습니다

그는 라르만손의 愛人입니다 그러리에드는 巴里에서 生命을 내걸고 사랑을찾저 單身으로 이곳까지왓습니다 屯所한에는 騷動이일어낫습니다

바다에와서 흰모래를보니 이런 『熱砂의곳』의場面들이 작고눈에 어립니다 그리고 熱風의사하라白沙場 가도가도없는 흰모래가 역시그리워집니다。

十四日—木浦바다에서—

(寫眞은〃熱砂의곳〃中의한場面)

플리돌大演奏會
市內團成社에서

市內 團成社에서는 十八日부터 三日間 폴리돌音大演奏會를 가지게된다는바 出演者는 鮮于一扇 李花子 趙影心 金龍煥 尹鍵榮外 랩맨스와 밀리꼰짜스(반드等 總動員이될 모양이라고한다

(寫眞 폴리돌大演奏團)

管絃樂 (十九日午後八時)
組曲第三作品五五
—차이코프스키—作曲—

大阪放送交響樂團 指揮 에마누엘·메텔

어곡의작자 『차이코프스키—』는 노서아가 나흔 위대한작곡가어며 누구보다도 노서아의국민성을 음악으로 나타내엇니다 그는一八四〇년『비드킨』현(縣)『비드킨스크』라는 곳에서 나앗스며 一八九三년 직五十三세로 타해에 세도(露都)에서 영원히 잠들고말엇습니다 그가 좋아하던一八九三년 영국(英)『캠부리진』대학에서는 그에게 명예음악박사(名譽音樂博士)의 학위를보냇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그천품을 제일 잘나타내엿스며 그악기편성(樂器編成)은 가장큰대관현악의 속합니다 오늘밤연주할곡은 조곡으로 전부 네악장으로 나누어잇서 현란한변화는 듯는이를 끌기에 충분합니다

講演 (十九日午後七時)
朝鮮의高山植物
竹添小學校 朴萬奎

칠천척이상의 고산을올러가며는 나무는 모두 키가작고 가지가 적은 왜목(倭木)이되며 좀더올러가며는 수목은 업서지고 풀만이 엿습니다 이곳부터를가르켜 고산대(高山帶)라 합니다 그곳에 자라고잇는식물이 곳고산식물로 그것은 도저히 평지산록에서는 볼수업는 지극히곱고 신비로운자연의 화단(花壇)을 운소(雲霄)중에 펼치고잇는것입니다 조선에서의 고산식물은 주로 북쪽에잇는데 지금까지 철저치못한조사에 의하야 알려진 식물의종류만해도 八十여종이나됩니다 조선의 고산식물은 크게 삼대계통(三大系統)으로 나눌수잇습니다 (끗)

『마이크』訪問 (十九日午後八時三〇分)
東洋劇場舞臺뒤
D·K編成係案

『마이크』군은 어느 탐방기자(探訪記者)보다도『이라뷰ー』의 명수엿니다 군은 죽은물체로 간접적묘사(描寫)를하지안코 듯는대로를 그대로옮겨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항상궁금이여 기실듯이 생각되는 무대뒤로탐방을 하엿습니다 조광(照光)과 오색조명(照明)으로 분칠한무대는 화려하기그지업스나 막한겹뒤에 감추어 엿는 무대뒤 풍경은 어떠한가요。오날 『마이크』군은 그곳으로 첫탐방을나가게되엿습니다 경성에엿는 동양극장무대뒤엿니다 군의 첫탐방이 얼마나 성공할지 들어보아주십시요。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차저보고시프신곳을때때차저보려합니다。

放送 十九日(火曜)

◇午前六時〇〇分 (東)라디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家庭메모 日用品時勢

◇同一一時一五分 連續婦人講座 姙娠에서出産까지(二)『姙婦의保健』 許英肅

◇正午 (東)時報 新民謠(레코ー드)

◇同午後〇時三〇分 뉴ー스

◇同四時〇〇分 뉴ー스 職業紹介

◇同四時三〇分 大相撲實況(國技館으로부터中繼)—千秋樂— 京城南米倉町伯

◇同六時三〇分 童謠齊唱과獨唱 東明學校兒童 피아노伴奏 金撤亞

一、齊唱 구름 二、同 종달새 三、同 산바람강바람 四、獨唱 기럭이(劉瓊姬) 五、齊唱 고향하늘 六、同 등대 七、齊唱 조희배 八、獨唱 제비꼿(方玉仁) 九、齊唱 무명초 十、獨唱 봉사꼿(朴東旭) 十一、齊唱 배노래 十二、齊唱 집업는새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〇〇分 講演『朝鮮의高山植物』 朴萬奎

◇同七時三〇分 뉴ー스 銃後美談 天氣豫報

◇同八時 (大) 管絃樂 組曲『第三』作品五五 차이코프스키—作曲 第一樂章 엘레지— 第二樂章 왈츠·메랑코리— 第三樂章 스켈조 第四樂章 테ー마·꼰·빠리아치오ー니 大阪放送交響樂團 指揮 에마누엘·메텔

◇同八時三〇分 마이크訪問 東洋劇場化粧室 劇團豪華船一行 司會 張陣 人事 崔獨鵑 (木枕들고)一人一藝 崔仙 朴永信 劉桂仙 李正順 嚴美花 文貞福 朴玉華 金景希 李東白

◇同九時 唱劇調 鼓手 韓成俊

◇同九時三〇分 뉴ー스解說

◇同九時四〇分 時報 뉴ー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

◇同一〇時一〇分 國語講座(三) 李完應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基礎英語講座

◇正午 (東) 漫談

◇午後六時 (東) 偉人傳諸葛公明

◇同六時二五分 (東)講演酒澤例

◇同七時三〇分 (東)歌謠松原操

◇同七時四〇分 (自北京)

◇同八時 (大) 管絃樂大阪放送交響樂團

二十日(水曜)

◇同八時三〇分 (東) 時局讀本

◇同八時四〇分 (名) 新內

◇同九時五分 (東)講談神田伯龍

◇午前六時(東) 라디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料理製法 〃산적〃 日用品時勢

◇同一一時一五分 連續婦人講座 『姙娠에서出産까지(三)胎兒의發育』 許英肅

◇正午(東) 時報 (東) 合唱

◇午後零時三〇分 뉴ー스 오리 오들

◇同四時 뉴ー스 職業紹介

◇同六時三〇分 라디오스켓치 〃여름방학〃 作과指導 洪銀杓 白羊會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講演(京城)『文化移動에對하야』 普成中學校 在錫

◇同七時 夏期文學講座(平壤) 『文藝의槪念』(一) 大同工業 李孝石

◇同七時三〇分 뉴ー스 銃後美談 天氣豫報

◇八時 一、새打鈴 二、六字백이 三、興打鈴 四、개고리打鈴 金煉守 吳翡翠

◇同八時三〇分 라디오隨筆(一) 自作朗讀 金晋燮

◇同八時四〇分 一、제비歌 二、執杖歌 三、小春香歌 朴玉姬 尹一枝 尹一枝蓮

◇同九時一〇分 라디오小說 『여름休暇』 尹聖相

◇同九時三〇分 뉴ー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時報 뉴ー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

◇同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 (三五) 宋今璇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支那語講座

◇正午(東)合唱

◇午後六時(大)物語

◇同六時二五分(東)講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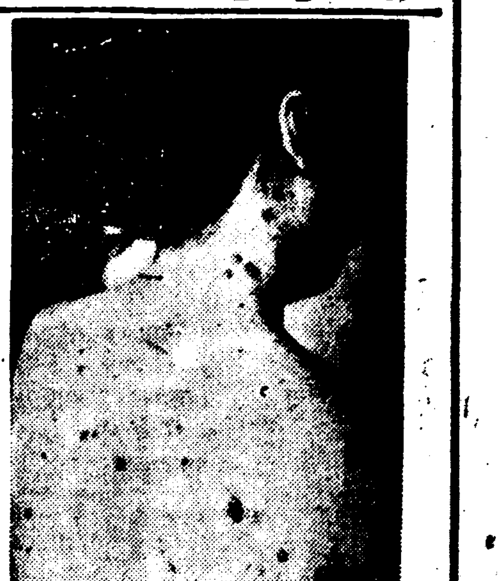
◇同七時三〇分(東)時局講話[illegible]

◇同八時四〇分 二曲(京城)

◇同八時五五分(東)時局讀本

◇同九時五分(大)浪花節

可恐할梅毒
◇初期에加療하라◇



丘疹膿疱瘡徽毒

梅毒은遺傳

[illegible]後天梅毒을 發하는 時期로서 齒、耳眼、睾丸、內臟까지도 侵蝕하게된다

梅毒은 傳染病인同時에 兩親에게서 其子孫에 遺傳하는 可恐할病이다 遺傳의經路는 男子의精虫及女子의卵子에 依하야되는것인데兩親에게梅毒이잇슬때는 胎兒는 流産이나早産하기쉽고 비록낫는다할지라도梅毒으로因하야 生後얼마안되여죽는수가만타 도한層 可恐할것은 梅毒遺傳은 數代에 亘하야 波及하는것이다

梅毒의經過

梅毒은 性病中에서도 淋疾과 달러서 局部的疾患이아니라 梅毒病原虫(스피로헤ー테、바루리다)의 侵蝕하는 範圍와 其毒素作用은 全身어디한곳에든지 波及하는 可恐할病이오 그經過는 至極히 緩慢하야 걸면 二十年—三十年에까지친다 普通 그經過를 三期에分하다

第一期 病毒感染으로부터 初期硬結을 일으켜 全身症狀을 發하기까지의 三個月을云함

第二期 全身症狀即薔薇疹을 發하여서부터 丘疹을 發現하는 約三個年間이며 가장感染力이 旺盛한 時期이다

三期 約三個年을經하야 護謨腫 潰瘍

初期에治療

그럼으로 初期中에 適切한治療를加하는것이 必要한데 한번나은것처럼 보히면서體內에潛伏한病根으로부터 數年後에는可恐할腦梅毒等을 일으키는 例가적지안은것을 볼지라도 治療時期를 일치말고 根治할때까지 잘참아서治療를 繼續하는것이 絶對로必要하다

梅毒根治의 秘訣은 第一期의 初期硬結이잇슬時期에 完全한治療를 施하는것으로서 여러캐하면반드시根治되는것이다 그러나梅毒이淋巴腺을侵犯하야血液中에侵入하게되면 治療가길어지고 다시第二期、第三期로 進行함에따라서점점困難하게된다 그럼으로 꼿지거슨初期에徹底的治療를加하야 根治할것을에서는아니된다 二期三期가된사람이라도 늣지안으니 熱心히治療하시라

梅毒의簡易한內服療法

有田도랏구의 梅毒藥은 政府制定日本藥局方驅梅劑三種과 皇漢梅毒數種을 主藥으로하야 副作用의絶無를 期한 許可濟의 驅梅劑로서 初期의 梅毒、梅毒의治療는 勿論第二期全身梅毒、潛伏梅毒、遺傳梅毒、梅毒性류마티스等도 本劑를服用하면排毒作用을行하야梅毒에서부터 流기는 不快症狀과 局部並全身病狀이 漸次업서저서 治病의目的을 達할수잇다。可恐할梅毒을 子孫에게 遺傳식히지안토록 有田도랏구의驅梅劑로 治療의目的을達하시라

梅毒藥 特製(十七日分) 別製(三十日分) [illegible]

有田ドラッグ専売所

京城 郵便本局前 / 城 龍山練兵町 / 平壤 泉町二 / 釜山 幸町一 / 群山 驛前通 / 全州 高砂町 / 光州 本町三 / 木浦 榮町二 / 大邱 弓町 / 馬山 京町三 / 麗水 港町 / 浦項 本町 / 兼二浦 本町 / 鎭南浦 漢頭里 / 海州 南本町 / 新義州 櫻町 / 元山 本町三 / 咸興 軍營通一 / 羅南 生駒町 / 興南 上天機里

당신의아름다움은 ミツワ의常用에依해서더욱빗납니다 굉장하고獨特한麗肌作用이잇기때문이요

世界最高의標準石鹼으로 硬水에도잘풀린다

ミツワ石鹼 미쓰와

ミツワ石鹼本舖 東京·兩國 ◯ 丸見屋商店